

“출제경향·예상 난이도 점검해야”

오는 11월 15일 시행예정인 2019학년도 수능시험이 9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무리 학습 등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정확하게 예상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난해 수능 문제를 포함한 기출문제도 반드시 풀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실제 시험시간에 맞춰 문제를 푸는 등 실전대비 연습에 들어가되 조금씩 해나가는 자세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올해 수능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능 D-99...맞춤형 학습요령

국어-긴 지문 꼼꼼히 읽고 효율적인 내용 파악
수학-쉬운 문제도 직접 풀어 실전감각 키워야
영어-빈칸 추론 등 비중 높은 문제 집중 공략
탐구-시사적인 자료 구성된 문제 많이 접해야

통해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어

국어영역은 지난 6월 모의평가 경우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지만, 화법과 작문 영역이 통합된 세트 문항이 출제됐다.

문법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한 개의 지문을 주고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단어에 대해 물어 보는 문항이 출제됐다. 문학 영역은 고전시가와 수필을 묶은 복합 지문 대신 현대시가와 수필 복합 지문이 출제됐다. 독서영역은 3개의 지문으로 구성하고 길이가 긴 지문을 주고 6문항을 출제하는 등 2018학년도 수능과 유사하게 출제됐다.

따라서 수험생은 긴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효율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상위권 학생은 취약 분야를 집중 공략하고 실수를 줄이도록 연습해야 한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연계교재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분야별 기본 개념을 기출문제와 EBS연계 교재의 지문을

◇수학

수학 영역은 성적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포기하면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만회하기가 쉽지 않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수학적 원리를 알고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항들과 각 단원을 연계한 단원 통합 문항들이 골고루 출제됐다.

수학의 기본적인 정의와 정리, 공식 등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계산 과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를 풀 때 모의고사 형태보다 단원별로 정리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차례로 공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어려운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라도 직접 풀어 실전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된 영어는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6월 모의평가는 상당히 어렵

게 출제돼 1등급 인원이 4.19%였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다소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모의평가는 어휘 문제와 복합 유형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고, 이의 어휘와 복합 유형을 비롯해 전통적인 고난도 유형인 빈칸 추론, 글의 순서, 주어진 문장 낱가 변별력을 가르는 주요 문항들이었다.

EBS 연계 교재에서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EBS 교재와 주제, 소재, 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을 활용한 간접 연계 문항으로 출제됐다. 항상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인 빈칸 추론,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찾기, 요약 등 비중이 높은 문제들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탐구

사회탐구 영역에서 한국사는 6월 모의평가에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소양을 묻는 문제 위주로 출제돼 쉬웠다. 사회탐구의 다른 과목은 상당히 쉬웠던 지난해 수능에 비해 대부분 어렵게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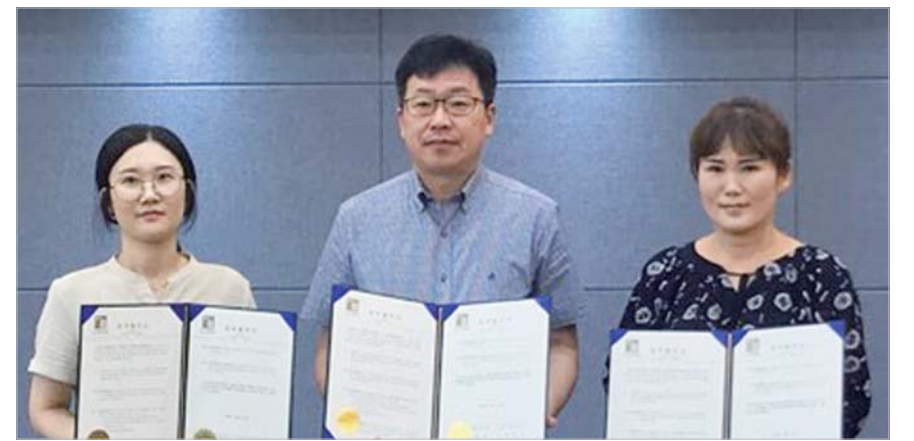
제됐고 실제 수능시험에서도 난이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 지도, 그래프 등 도표 자료들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교과와 기본 개념에 대한 학습이 가장 중요하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교과와 개념들이 다양한 소재, 자료들과 함께 응용돼 출제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어느 과목이라도 시사적인 문제가 출제된다. 시사적인 자료들로 구성된 자료집을 읽거나 이를 활용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과학탐구

과학탐구도 6월 모의평가에선 대부분 어렵게 출제됐다.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 외에도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된다. 개념 이해와 더불어 실험실습 과정과 결론 도출 능력을 중요시 하므로 가능한 한 교과서에 나오는 탐구 과정과 그 결과를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시사적인 자료들로 구성된 문제들을 통해 실생활과 과학의 적용 사례들을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도 좋다. 특히 기출 문제와 함께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접하면 실전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긴다.

지역 학원가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인문·자연계 모두 국어와 수학의 비중이 높아져 영역별 반영비율과 가중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음달 5일 예정된 수능 모의평가 역시 합격으로 향하는 마지막 가능성자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고광민 기자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는 최근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중회의실에서 완도 신지면 '동고지역아동센터' 및 '신지지역아동센터'와 각각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조선대-완도 신지면 아동센터 2곳 MOU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지역사회 발전 기여”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는 최근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중회의실에서 완도 신지면 '동고지역아동센터' 및 '신지지역아동센터'와 각각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신지지역 아동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육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춘성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장과 동고지역아동센터 김경선 센터장·신지지역아동센터 박화미 센터장 등 비롯해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서 서명식에선 지역아동센터에 선물 전달식이 거행됐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향후 조선대 해양연구교육센터 시설을 이용

시 편의제공·지역의 유무형 자원 등 지역사회발전 관련 연구사업 아동센터의 지역정보 제공 협조·기타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 개소한 조선대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는 해양생물 유래 신기술 식품의 개발 및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해양 천연물 신의약 개발·해양 신소재 대량생산·수산양식 및 해양환경 생태보전 등 다양한 해양생물 연구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교육과 훈련 기능에도 역점을 뒀 겨울방학 동안 초·중·고 학생들의 해양실습 교육과정개발과 해양수산업 인력양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광민 기자

광주시교육청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이현서 강사 ‘나를 알면 아이가 바뀐다’ 특강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광주 엄마가 달린다’ 소속 회원과 관내 학부모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소규모 단체 및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교육에 이현서 강사를 초청해 ‘나를 알면 아이가 바뀐다’는 주제로 ▲부모와 자녀 성격 파악하기 ▲위인들을 보며 우리아이 어떻게 키울 것인가 ▲비폭력 대화법 등 강의를 진행했다.

이 강사는 뉴욕플러싱상당센터의 한인청소년심리상담사로 활동했다.

현재 이은인심리상담센터의 심리상담사로 활동하면서 성장분석(에니어그램)을 매개로 한 학부모교육·교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광주 엄마가 달린다’ 소속 회원과 관내 학부모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소규모 단체 및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개최했다.

정복지도도 및 인성심리상담·학교폭력 예방 강사로도 일하고 있다.

이 강사는 “아이와 부모의 성장 분석을 통해 아이 내면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혜로운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한 특별한 독서법, 비폭력 대화 방법으로 자녀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이번 강의를 통해 그동안 엄마의 생각으로만 아이를 가르쳤는데 이젠 아이의 생각과 욕구를 들어 노력해야겠다”며 “자녀교육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은 평소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 또는 맞벌이 부부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직장 및 기업, 단체 등으로 직접 찾아가, 학부모들의 자녀교육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송왕근 교육자치과장은 “앞으로도 학부모교육을 원하는 곳에서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광민 기자



광주시 자매도시인 중국 광저우시 원귀휘 시장 등 광저우시 방문단 6명이 최근 광주차이나센터를 방문했다.

중국 광저우시 원귀휘 시장, 광주차이나센터 방문

호남대학교는 광주시 자매도시인 중국 광저우시 원귀휘 시장 등 광저우시 방문단 6명이 최근 광주차이나센터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원귀휘 시장 일행은 이날 쉰시엔위(孫顯宇) 주광주중국총영사 등과 함께 차이나센터 전시실과 다목적홀, 라운지홀, 행정실 등을 둘러보고 조경완 센터장과 환담했다.

조경완 광주시 차이나센터장은 “원귀휘 시장의 광주차이나센터 방문을 대단히 환영하며, 광주시와 광저우시의

문화교류 및 우호협력에 향후 양 도시의 활발한 교류와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귀휘 시장은 “앞으로 차이나센터가 광저우시와 광주시의 우호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창구이자 가교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중국 광저우시는 지난 1996년 10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인연으로 결연해 경제·문화·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고광민 기자

2018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13년 연속대상

novita A KOHLER COMPANY

올 / 여 / 름 / 시 / 원 / 하 / 게 / 쓴 / 다

SUMMER EVENT

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노비타가 시원하게 드립니다!

Dr.clean 서비스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비데제품 사용을 위해, 서비스 전문 기술자가 직접 제품 Maintenance (유지보수) 해주는 종합관리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적용 상태 점검 양변기 살균 청소 밀면 살균청소 내부전체 청소 변차 살균 소독 걸음양 세척 외관 청소 필터 교환) 서비스 비용 44,000원 (8개 항목포함)

행사 품목 무료 설치!

행사비대 구입시 1년치 필터 증정(2개)

<p>01 비데 그 이상의 워터 테라피 방수 워터 테라피 비데</p> <p>BD-TE80M</p> <p>399,000</p> <p>아로마 핸드형 선풍기 / 향물리는담(12종) 증정</p>	<p>02 완벽한 고급 방수 비데</p> <p>BD-N443</p> <p>299,000</p> <p>아로마 핸드형 선풍기 증정</p>	<p>03 완벽한 실속 방수 비데</p> <p>BD-N431</p> <p>249,000</p> <p>아로마 핸드형 선풍기 증정</p>
--	--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본사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www.novita.co.kr

구입문의 | 062-515-1144